기후에너지환경부 | 보도참고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11.(수) 21:00 배포 2026. 11. 11.(수)

2035년 전 세계 전기화율 35% 달성 공약, 한국 지지 의사 표명

-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31) 계기, 튀르키예가 제안한 '35-바이(by)-35 공약'에 한국도 지지 표명
- 2035년 전 세계 전기화율 향상을 위해 국내·외 모두 지속 노력키로

기후에너지환경부(장관: 김성환)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31)를 계기로, 우리나라도 튀르키예가 제안한 '35-바이(by)-35' 공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.

'35-바이(by)-35' 공약은 2035년까지 전 세계 최종에너지소비 중 전력소비 비중을 35%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 튀르키예는 공약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이번 총회를 계기로 각국의 전기화 정책과 이행계획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이에 우리나라는 11월 11일 (수) 개최되는 '청정에너지 전환 및 전기화 고위급 대화'에 강금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참석해, 2035년까지 전 세계 전기화율 35%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,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전기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.

이 자리에서 한국은 올해 4월 발표한 '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'과 5월의 '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', 9월의 '전력망 혁신대책' 등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, 이를 바탕으로 전기화를 선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, 앞으로도 전기화 확대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다.

이와 관련하여, 산업공정의 전기화와 전기차·히트펌프 등 청정에너지 기술의 확산도 추진하는 한편, 배터리·전기차 등 분야에서 축적한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, 지난 9월 발표한 라이즈 아시아(RISE ASIA)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각국의 전기화 확대 기반 조성 및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국제협력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.

기후부는 이번 '35-바이(by)-35' 공약 지지를 계기로, 국내 전기화 확대와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연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, 우리의 정책 경험과 기술 역량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.

붙임 : 청정에너지 전환 및 전기화 고위급 대화 개요. 끝.

담당 부서	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상헌 (044-201-6640)
		담당자	서기관	조아라 (044-201-6639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청정에너지 전환 및 전기화 고위급 대화 개요**

1. 행사명

o 청정에너지 전환 및 전기화 고위급 대화: 「35 by 35: Powering the Future」

2. 일시 및 장소

o 11.11(수) 15:00-16:30(현지시간) / Leader's Roundtable Room 5 (Boğaziç)

3. 주최 : COP31 튀르키예 의장국

4. 논의 주제

o 2035년까지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 비중을 35%로 확대하기 위한 '35 by 35' 글로벌 전기화 공약을 중심으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국제협력 방안 논의

5. 참석자

o 국가 정상 및 정부 수반, 국제기구 수장, 기업 CEO 등

* 우리측 참석자 : 강금실 글로벌 기후환경대사

6. 진행순서

o (개회) 전기화의 전략적 중요성에 관한 고위급 개회사 및 기조연설

o (전문가 발표) 국제에너지기구(IEA) 및 국제재생에너지기구(IRENA)의 글로벌 전기화 동향, 이행 과제 및 기회 관련 발표

o (정상급 대화) 국가별 전기화 정책 및 이행 경험, 기반시설 및 투자 수요, 국제협력 방안에 관한 의견 교환

- '35 by 35'에 대한 지지 표명 및 국가별 공약 공유